

제 | 2 | 주 | 제

유기농의 본질적 가치 그 평가와 지향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농사의 길-

권광식 | 한국방송대 명예교수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유기농 교육 협의회장

유기농의 본질적 가치 그 평가와 지향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농사의 길-

권광식

차례

1. 우리농사 지금 어디에 있는가.
2. 농사가 지향하는 생명성 - 본질적 가치
3. 우주 에너지 응용과 유기농사의 토대
 - (1) 살아있는 에너지
 - (2) 생명에너지 농사
 - (3) 식물의 생각- 그 정신세계
 - (4) 생명의 연금술사 토양
 - (5) 중첩중력에너지 이용과 생명에너지 발현
4. 정리와 희망

1. 우리 농사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오늘날 우리 주위를 조금만 세심히 관찰해 보면 자연자원의 고갈, 지구의 수계(水系) 질서가 교란되면서 온 생명위기, 특히 농산물 품질저하(먹을거리 오염) 등 재앙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 과학이 그리고 우선 농사가 진정으로 자연의 법칙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적어도 재앙의 수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과 농사를 보면 자연의 방식과는 아주 엇박자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의 화학적, 기계적 과학영농은 대지의 표피를 벗겨 놓고 독약을 뿌려대면서 자연과 사람이 죽기 살기 전투로 결국 승자 없이 패자만 남는 가히 농사의 사막화(토양침식)¹⁾를 재촉하고 있다.

○ 석유 없이는 작동이 어려운 우리의 농사 - 이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²⁾에 균열을 내면서, 농사의 사막화에서 탈출,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농사,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켜내지 않고서는 오늘도, 다음에도 희망이 없다.

○ 그렇게도 농사의 과학기술영농과 규모의 경제가 원없이 간섭하고 뒹달렸지만, 지금의 농사는 결국 그 다양성·면역성·생명성³⁾(위대한 자연)만을 파괴하고 있을 뿐 초조해하면서 무너지고 있다.

○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물음 앞에 서 있게 된다.

○ 농사가 자본중심 개발성장 앞에만 서면 왜 자꾸만 작아지는가?

○ 지속가능한 생명농사의 길은 인공의 기술 그 너머에 있는 것 아닌가?

○ 이 물음은 농사방식의 근본에 대한 물음이다. 그리고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를 위한 폭력적인 개발성장 이데올로기 앞에 농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1) 토양침식의 손실에 대한 과학적 평가. 참고 문헌 p. Crosson, "Soil Erosion Costs and Estimate," Science 269(1995)

2) 자동차나 경운기를 11시간 부리면 한 사람이 1년간 필요한 산소량(260kg)을 소모해 버린다. 자동차는 온 생명에게 필요한 산소자원을 사람의 750배 소모하니 자동차나 경운기를 11시간 운전하면 750명의 노예를 부역시킨 셈이다.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는 벤트 차의 엔진도 투입된 에너지를 100(불)으로 할 때 사용된 에너지는 겨우 13%(1.69불) 정도라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방정식($E=mc^2$)을 생각해 본다면 1g의 물질(한 방울의 물)에는 2,500만kwh의 에너지가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거대한 발전소 하나가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좋은 샘플 한 방울에도 깃들여 있는 것이다. (빅터 샤우버거; 살아있는 에너지)

3) 찰스다윈(1809-1882)은 자연선택이론을 동원해서 “인간이 지구의 중심적 존재가 아니며(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갈릴레오), 생명의 나무-인간과 지렁이는 하나의 잔가지로 온 생명의 관계 연대성을 설명한다. 그의 유서에서는 자연의 힘 즉 다양성이 면역성이고 이거가 곧 생명성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농사방식을 제시 했다.

○ 저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된다. 지금까지 자연의 방식을 거역하는 것은 다 재앙을 불러들였건만, 우리의 현실은 생명의 강을 파고, 막아서 돈을 챙기자는 개발성장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경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자연생태문제를 외면하고, 개발성장 신화의 덩어리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 세상은 예외 없이 이른바 시장 권력의 지배하에 있다. 그 시장지배 자본주의는 생산이라는 효율성이 큰 바퀴에 실려 돌아가는 체제이고, 이 바퀴는 자연 자원을 계속 이용(착취)해 경제이윤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늘려가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바퀴가 지향하는 방향은 지구의 기본적 생태 순환과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실로 농사의 생존조건은 자연생태 환경이므로 인공의 과학기술은 시공(時空)적으로 우주의 자연에 비해 실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2. 농사가 지향하는 생명성 - 본질적 가치

○ 이제 농사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새겨보아야 하고 그것을 챙기려면 먼저 자연과 농사에서 다양성, 면역성, 생명성을 이해하고 그 메카니즘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 자연 그리고 농사의 무한한 다양성·면역성·생명성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실로 농사의 본질적 가치가 살아 있으며, 그곳에 우리는 한없는 경이감을 금치 못한다.

○ 자연은 특히 식물(농작물)은 오랜 진화과정에서 터득한 그들만의 생존 전략으로 그들을 배신한 인간들까지 껴안으며 온 생명과 지구의 치유를 위해 눈물겹도록 몸부림친다. 위대한 것은 자연이다. 화재가 난 숲 밑에서 가장 먼저 돌아나는 상추가 인체의 화상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든가, 코끼리들이 분만 시 먹는 야자나무 잎이 인체에서도 똑같이 분만촉진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 개미들은 그들의 항생제(에스코보피스)로 그들의 균류지대를 치료한다. 그런데 그 항생제는 왜 항생제 내성을 발달시키지 않았을까? 답은 제약회사 제품(인간과학기술 = 자연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물들의 화학물질은 의미로 충만해 있다. 하나의 에너지요 언어인 것이다.

○ 식물과 야생의 생태계, 특히 생명에너지 농사는 인간을 위해 먹거리로 쓰이는 것 말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삶과 목적이 있으리라는 것 - 식물이 생태계 속으로 수백만 가지의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것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우주의 정보에 따른 반응이라는 것이다. 생물학자 「라울프랑세」는 식물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및 자외선 같은 색깔의 파장까지도 구별해 내고, 고주파 같은 것에 민감하다는 사실도 밝혔다.

○ 여기에서 과학 그리고 농사는 “양”보다는 “질”을 먼저 생각한다는 자연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생명의 힘이 그 농사는 물론4) 우주(자연·농사)에 있음을 밝히고 그 응용에 나서야 한다. 지금도 자연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답을 주고 있다. 그 답은 겸손한 지혜로운 삶의 길(자연·농사)에서 만날 수 있다.

「프란세」와 「슈타이너」는 일찍이 모든 식물(농작물)의 세계는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계, 은하계의 행성들의 운행에 반응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식물이 항성들이나 다른 천체들의 영향도 알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리라고 예견했다.5)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체들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첩중력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자연과 하나로 동화(동조-동진-구구나)될 수 있는 때에야 비로소 생명의 농사가 살아있는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우주에너지 응용과 유기농사의 토대.

(1) 살아있는 에너지.

○ 성찰과 깨달음에 도움 될 수 있는 자연의 생명농사-유기농의 근본을 알아보기 위해 선각자들의 실증적 사례에 접근해 보고, 농사의 본질적 가치 그 평가와 지향점을 재확인해 보고자 한다.

○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자연의 웅대한 에너지-중첩중력에너지가 어떻게 농사와 상호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이 「빅터 샤우버거(Victor Schauberg), 살아있는 에너지,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생명에너지 농사, 김학제6)의 화합농사법 등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이론과 생명성에 대한 시각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7)

4) 화학비료, 농약, 농자재 등은 결국 식물의 자생력(다양성·면역성·생명성)을 퇴화시킨다. 한 연구에 의하면, 호밀 한 포기에 약 1300만 여개의 잔뿌리와 140억개의 실뿌리가 달려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식물의 정신세계 7) 이처럼 식물은 자생력있는 생명체로서 다만 느리게 대응할 뿐 필요 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칼 폰 린네)

5) 그런데 현실은 대자연 우주의 섭리를 올바르게 알리고 우리를 깨우쳤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요한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 갈릴리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빅터 샤우버거 등이 겪은 반발과 혹독한 시련은 아직도 우리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다.

6) 중첩중력에너지 이용 물질개선키술 창시자. 무항생제 축산 및 무농약재배기술 등 환경오염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평생을 바쳐 연구해오고 있음. (사)아시아태평양 지구생명환경개선협회 회장, (사)생명축산연구협회 회장, 평평나나의학 창시자.

7) 이들 선각자들은 「4차원 5차원의 존재」로부터 발원, 유지되는 이른바 하늘과 땅의 중첩중력에너지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연과 농사 현상이 일어난다고 강조한다.

시베리아 출신의 천재적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처럼 “과학이 비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날, 그 날로부터 10년 동안에 이루어질 발전은 과학이 지난 모든 세기동안 이루어낸 것보다 더 눈부실 것이다.”⁸⁾ 인류문명의 발전을 위해 정말로 어떤 일이 중요하고 무엇이 절실한 문제인가를 시사해 주는 과학의 호소다.

자연생태를 지키는데 평생을 바쳐온 천재적인 과학자 「빅터 샤우버거」는 그의 친구에게 보낸 생의 마지막 편지에서(1958) “제가 밝히고 싶은 진리가 세상에 출현하여 실현될 수 있다면 위대한 자연을 홀대한 모든 정치권력은 붕괴될 것이고, 지금의 과학은 암을 유발하는 실질적인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라고 절규하다 싶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해냈다.

○ 빅터는 높은 차원의 미약에너지들로부터 자연의 모든 사물의 구조와 형태가 갖추어지고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한다.⁹⁾

○ 1930년대 불가리아에서 농업생산량 급감소일 때 나무쟁기로 땅을 갈고 새레질을 얹는 터키에 인접한 남부지방만 토양은 기름지고, 건강한 풍성한 수확이 가능했다. 그 원인은 철쟁기로 빠른 속도(경운기)로 땅을 갈면 토양에서는 전기분해 현상과 유사한 작용이 발생 토양의 전압이 떨어지고 물분자간의 표면장력이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토양속의 미약 에너지가 파괴되고, 미생물이 피해를 입는다.¹⁰⁾ 철쟁기는 미세한 녹성분 섯가루를 토양 속에 남겨 얹은 산화철막을 형성하여 토양의 보습력을 떨어뜨리며 이것은 병원성 박테리아들의 증식을 촉진시킨다.

○ 더구나 철쟁기의 고속회전은 마찰력은 발생하고 땅속의 토양구조를 파괴하는 고압력이 발생 토양속의 모세관 체계가 파괴된다. 이것이 파괴되면 땅속의 생태계에 심한 교란이 일어나 지력이 쇠퇴됨을 증명했다.

○ 「빅터」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말미암아 물속에 갇혀 있는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고 고속 철쟁기의 흉기성을 폭로하였다. 농사에서 물은 무엇인가? 바로 대지의 어머니인 지구에게는 피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한다.

○ 「빅터」는 철쟁기 대신 구리쟁기를 사용하게 될 때 철전자기적 작용이 생전자기적 작용으로 바뀌어져서 생자기적 이온화 과정이 촉진되므로 작물의 성장과 지력보존을 할 수 있다는 연구사례를 발표했다.¹¹⁾

8) 니콜라 테슬라의 생애와 그 발명들; 마가릿 체니-이경복 역

9) 살아있는 에너지 빅터 샤우버거의 삶과 과학; 콜럼코츠, 유상구 역

10) 전기분해에서 생겨난 최종 산물은 순수한 미숙성수로 모든 생명체에 해로운 물이 된다.

11) 철쟁기 사용이랑에서 보다 구리판 부착 쟁기 사용 이랑에서 옥수수의 경우 40%이상 소출이 많았다. 이런 현상을 호밀, 감자 농사에서도 높은 생산성이 입증됐다. 그리고 이랑은 직선보다 물결치듯 곡선이고 방향을 동서보다 남북방향이 일조량과 토양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불속에서 꺼낸 화학비료 사용은 결국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각종 영양소, 숙성된 양질의 물, 빗물질 에너지 등이 이동하는 토양속의 모세관 즉, 흙의 숨통을 막는다. 나아가 식물의 병충해를 초래하여 다시 농약살포를 가져와 온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 농사의 핵심은 지력유지에 있다. 「리비히」와 동시대의 농화학자 「율리우스 헨젤」은 (돌에서 빵 Bread from Stone의 책에서)그리고 미국의 공학자 「존 해메이커」 (문명의 존속을 위하여The Survival of civilization)는 돌가루는 지력유지의 최상품이라 강조한다. 왜냐면 농산물의 성장과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양 속의 무기물과 미량원소의 함량 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미시컨 주의 농장 실험에서 돌가루는 10cm에 불과했던 지표면의 깊이가 10년 만에 1~2m까지 개선되는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바 있다.¹²⁾

○ 평균수명이 130~140세로 유명한 장수촌인 북부 파키스탄의 훈자지방은 토양에 미량원소와 무기질(돌가루)이 풍부한 땅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생명에너지 농사

○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지학을 이해 못하면 생명에너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인지학은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길이며, 이 길은 사람 안에 있는 정신을 우주 안에 있는 정신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에너지 농사는 자연 속에 작용하는 여러 기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인식위에 이루어진다. 즉 농사는 지구적 요인(물+영양분)과 우주적 요인(빛+온기)에 의해 유지 生動됨을 강조한다.¹³⁾

○ 화학비료농업은 「리비히」의 이론에 의해 질소, 인산, 칼리, 석회 같은 무기화학비료를 주어야 한다는 농사법이다. 그런데 「리비히」 자신도 무기질비료를 주어도 부식토가 적은 땅에서는 여전히 무기질 결핍현상이 나타남을 강조하였다. 식물의 생존 필수 조건은 물과 영양분 같은 지구적 요인과 온기와 햇빛 별기운 같은 우주기운이라 보았다. 이는 루돌프 슈타이너, 빅터 그리고 화화농사법의 김학제 선생과 같은 시각이다.

○ 일반적으로 농사에서 지구적 요인(물+비료=영양분)에만 관심이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벡터, 슈타이너, 화화농사법에서는 우주적 요인(햇빛, 온기,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 미량원소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 예컨대 식물은 미량원소를 뿌리보다는 잎을 통해서 보다 더 잘 받아들임을 강조한다. 오렌지나무의 경우 100,000,000:1의 아연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열매가 열고 안 열리는 결과를 가진다.

○ 식물의 영양도, 맛, 모양은 계절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은 농작물은 지구적 요인보다 우주적 요인에 그 맛과 영양,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구가 행성, 태양계, 은

12) 서오스트레일리아의 「배리 올드피드」의 실험자료에 의하면 특히 묘목의 성장과 건강상태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했다.

13) 루돌프 슈타이너, 농업강좌. 변종인 역

하계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다르다. 우주의 영향력에 농작물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어느 하루 중에 그리고 어느 계절 가운데 어느 한 시점의 우주가 별 기운 또는 중첩중력에너지가 식물 안의 영양소가 녹아 있는 상태를 만든다.

○ 빛의 작용은 아침, 저녁시간에는 식물 성장을 촉진시키고 한낮, 한밤중에는 억제한다. 식물 속의 질소함량도 아침 저녁에는 많아지고 따라서 성장이 촉진되나 한낮에는 함량도 적어지고 성장도 억제된다. 이는 바로 우주의 기운(해, 달, 천체별들)이 식물 안에 있는 요소를 조절 결정함을 의미한다. 어떤 요소가 어떻게 유동하여 어떤 식으로 식물성장에 영향을 주는가는 은하계의 별들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어 어떤 기운을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 은하계의 별자리 주기가 내분비선이나 신진대사 때 이루어지는 생리작용 그리고 식물 체액(즙)의 흐름과 밀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과학자들의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 자연의 생명체 농작물은 우주 자연의 힘(기운)에는 진화 발전으로 적응하지만 인공적 힘에는 약화된다. 예컨대 무기질 화학비료를 주면 작물의 염색체(원생명) 속에 들어있는 힘이 내몰려서 그 식물(작물)은 자력이 약화되고 마침내 그 종자의 질도 퇴화된다.¹⁴⁾

○ 슈타이너의 생명에너지 농법, 화화농사법 벡터의 자연관 등은 모두 우주의 영향아래 놓여있는 식물을 다시 전체 자연의 흐름 속으로 돌리는데 기본원리를 둔 농사이며 그것을 실천적 과제로 삼는다. 그러므로 농사의 시작은 작물이 어떻게 생성되며 우주(태양계, 은하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농심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 자연은 자신의 성장과 진화를 위한 기본원리로서 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의 과학기술영농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와 화학비료와는 근본적으로 생성과 작동 원리가 틀림을 말해준다.

(3) 식물의 정신세계 - 식물의 생각

○ 미국의 유명한 거짓말 탐지기 거사 전문가 백스터(Cleve Backster)는 식물과 그 보호자(농부)간에는 거리와는 상관없이 서로 특별한 교감이나 친근감이 형성된다는 - 식물이 자기의 생각에 계속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실증적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그는 식물이 살아있는 세포의 죽음을 목격하게 될 때면 언제나 특유의 그래프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뜨거운 물을 수컷구멍에 부었을 때 식물이 반응 보인다는 것도 확인했다.

○ 「백스터」 생물 의학 고문인 세포학자 「하워드 밀러」 박사는 모든 생물은 공통적으로 어떤 종류의 “세포의식”을 지닌 것이 틀림없다고 실험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¹⁵⁾ 백스터가 주장하는 가설은 식물의 생명에는 아직 무어라 정의할 수 없는 지각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14) 피터 톰킨스; The Secret Life of Plants, 황정민역 p269~288. 부엽토, 미량원소가 부족한 토양에서 ants, 는 식물세포의 단백질과 탄수화물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단백질은 잎의 보호막을 찢치고 잎표면으로 위치함으로써 병해충에게는 맛있는 조건을 갖춘일이 된다. 농약으로는 생태적 균형만 무너뜨릴 뿐이다.

15) 피터 톰킨스; The Secret Life of Plants, 20세기의 대발견 : 인간의 마음을 읽는 식물

○ 쏘련 농업과학 아카데미 식물생리학부 부장인 「이반 이시도로비치 구나르」 교수는 연구실에서 수백가지도 넘는 많은 실험을 해본 결과, 식물에게는 인간의 신경 감각과 비슷한, 전기 자극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이었다. “식물들은 외부의 신호를 감지해서 그것을 특수한 통로를 통해 어떤 본부로 보낸다. 신경 중추는 인간의 심장 근육과 같이 팽창했다 수축하는 뿌리세포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식물은 분명한 생활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식과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죽어 버린다”는 실험 결과는 증언하고 있다. 벡스터의 실험과 일치하고 있다.

○ 광합성 작용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탄 미국의 과학자 「멜빈 캘빈」은 식물의 엽록소가 햇빛과 작용하여 전자를 방출하고 산화 아연 같은 반도체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고정되어 있고, 무감각한 것이라고만 여겨지던 녹색의 세계는 이제 살아 움직이며, 인간이나 동물 못지않게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다.¹⁶⁾

○ 45억년이나 된 지구의 피드백 고리는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인공의 기계로 재단하고 관리하기엔 벅찬 대상이다. 더구나 그 안의 식물(동물은 물론) 변화하고 움직이는 생물이기에(생물학자, 「라울 프랑세」), 다양성은 면역성을 이루고 그것은 생명성을 얻어낸다.¹⁷⁾

○ 이 다양성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뿜어내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을 막아준다. 살충제 같은 인공약은 결국 농사의 면역력, 자생력을 망가뜨린다. 옥수수, 콩, 호박을 같이 경작한 곳에서는 언제나 수확량도 많고 질병과 해충은 적어졌다.

○ 노벨상 수상자이자 옥수수 연구가 「바바라 매클린톡」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전자 구조를 재배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인 「괴테」도 더 일찍이 알았다.

식물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박테리아를 불러들인다. 한 예로, 사와로 선인장은 스키테놀이라는 휘발성의 스테로이드성 화합물을 분비해서 초파리들을 유인한다. 그 초파리들은 보답으로 선인장을 부패시키는 물질을 먹어치워 선인장의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모든 꽃 식물들은 자신의 꽃가루 매개체 집단과 정보를 교환하고 이들을 유지시켜 주는 복합적인 화학물질들을 분비해낸다. 무화가 나무들은 무화과 말벌을 통해 가루받이를 해왔다. 또 무화과나무 잎은 꼬마선충을 잡는데 이용된다. 꽃 한송이에서 얻을 수 있는 화열은 모기가 25km 비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 황무지; 스코틀랜드 북부의 벽지 모래자갈밭에 일구어 낸 유기농사의 성공 이야기이다.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같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힘(사랑)을 믿고 최고의 유기농사를 성공시켰다. 여기서 성공의 요소는, 물이나 거름보다 더 중요한, 흙 속에 쏟아 부었던 첫째, 사랑의 감정 같은 에너지였으며, 둘째, 식물의 생명을 양육하는 자연의 영혼이 있다는 믿음이라고 고백한다. 인간은 식물보다 늦게 지구에 출현했다. 셋째, 인간은 식물의 후예, 식물의 자식이므로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도와준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다.

16) 러시아의 식물 생리학, 특히 광합성에 대한 연구성과는 러시아 농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02년에 「자가디스 찬드라 보」의 <생물과 무생물에 있어서의 반응>이라는 책은 동양의 철학적 비물질 세계와 서양의 정밀 과학 기술을 융합시키는 역할을 했다.

17) 스티븐 헤로드 뷰너, 식물의 잃어버린 언어(2005).

○ 지구에 왔을 때 인류는 무지했다. 그래서 지구의 신들과 모든 생명체 속의 다양한 지성적 존재들이 인류에게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쳤다.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다. 자연계의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어떤 곳 어느 세대도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사람의 농심, 그런 농심으로 지은 농사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증거요, 증인이며 그 물증이 생명에너지 유기농이다.

(4) 생명의 연금술사 토양

프랑스 국립수의 학교 「앙드레 부아쟁」은 <토양, 풀, 암 soil, Grass and Cancer>에서 “우리 선조들은, 활력과 건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토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 부아쟁은 토양이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만든다는 생각을 전개하면서, 농사법의 최고수는 실험실의 화학자가 아니라, 대지에서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만홍니 실패를 들어, 식량이나 식물, 토양에 대한 화학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아쟁」은 인간과 동식물을 치료할 필요 없이 먼저 대지를 치료해야 된다고 강조한다.¹⁸⁾

○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나오기 (1951)전에 DDT 사용을 반대했었던 「사익스」는 자연-농사가 농약으로 관리될 때 자연은 그에 맞서 저항력이 생기고, 그걸 제압코자 또다른 강력한 약품이 나오는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엉클어진다고 걱정했다.¹⁹⁾

○ 「사익스」는 토양연구소가 토양분석을 통해 경작 불능의 땅으로 판정한 버림받은 땅에서 오히려 다른 경작지에서 보다 많은 수확을 얻었다. 같은 사례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안준, 농사의 거름을 준 유기농 토양에는 1그램의 흙속에 약 2,900만개의 박테리아가 생존하고 화학비료 시비 토양은 그 숫자가 절반에 안 된 사실을 밝혀졌다. 그 박테리아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 부식토를 만들고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준다.

○ 「코캐너」는 <잡초 : 토양의 수호자 Weeds : Guardian of Soil>에서 잡초들이, 사실은 땅속 깊은데서 미네랄을 끌어다 표토에 옮겨주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²⁰⁾

18) 이것에 대한 강조와 확신은 영국의 의료연구가 「로버트 맥캐리슨」이 세계 최장수 훈자족의 음식과 토양을 사례로 들고 있다. 영국의 「렌지」박사도 <건강의 수레바퀴 The Wheel of Health>를 통하여 확실히 보충하고 있다.

19) 「사익스(Friend Sykes)」는 오랜 농사 현장 경험을 가지고 <식량, 농업 그리고 미래(Food, Farming and Future)>라는 책을 냈으며, 당시 영국의 유명한 세균학자 「하워드(Albert Howard)」의 병해충연구를 현장 농사에서 실증한 사례 연구물들은 유기농업사에 귀중한 자료들이었다. 또한 당시 미국민에게 토양의 위대함과 건강의 귀중함을 알리는 캠페인 운동에 대단한 공헌을 했던 로데일(J.I.Rodale)의 <유기농업(Organic Gardening and Farming)>과, <건강을 되찾은 사람(The Health Finde)>을 세상에 퍼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농민이자 연구가 「사익스」의 농사현장 사례의가 큰 공헌을 했다.

20) 돼지풀, 명아주, 쇠비름, 췌기풀 같은 잡초들이 농작물에 필수적인 미량원소를 공급해준다.

(5) 중첩중력에너지 이용과 생명에너지 발현

○ 자연이라는 생명성은 단절된 지구만의 기운이 아니고 태양계, 은하계 등 수없이 많은 별들의 기운이 같이 어우러지는 중첩된 중력장과 정보장이 모아진 기운인 것이다.²¹⁾

○ 세상의 모든 것 특히 생명체-농작물을 구성하는 기본단위, 즉 원소 낱개 하나하나는 날개인 동시에 크기가 다르거나 같은 종류의 동조성 원소들과 어울려 질서 있게 대우주기운과 연결되어 있어서 한편으로 하나로 통하는 대우주 전체의 기운인 것이다.

○ 물질개선(지구생명환경개선)기술의 핵심²²⁾은 누가, 얼마나 이러한 중첩중력에너지와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공기 중에는 수많은 방송파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직접 듣거나 느끼지는 못하지만 라디오가 있으면 이것을 들을 수가 있다. 방송파의 숫자는 방송국 숫자와 같으며 방송국만큼이나 각자 틀린 프로그램(정보)이 방사되고 있는 것이다.

○ 이렇듯 중첩된 많은 방송파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과 같이, 별처럼 혹은 티끌이라 할지라도 대우주에 무게가 존재하는 것들은 지구에 중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별들의 중첩된 중력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마치 방송파를 수신하려면 수신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중력장속의 에너지와 정보를 수신하는 것은 모든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 무 생명체 자체이며 그들이 곧 수신기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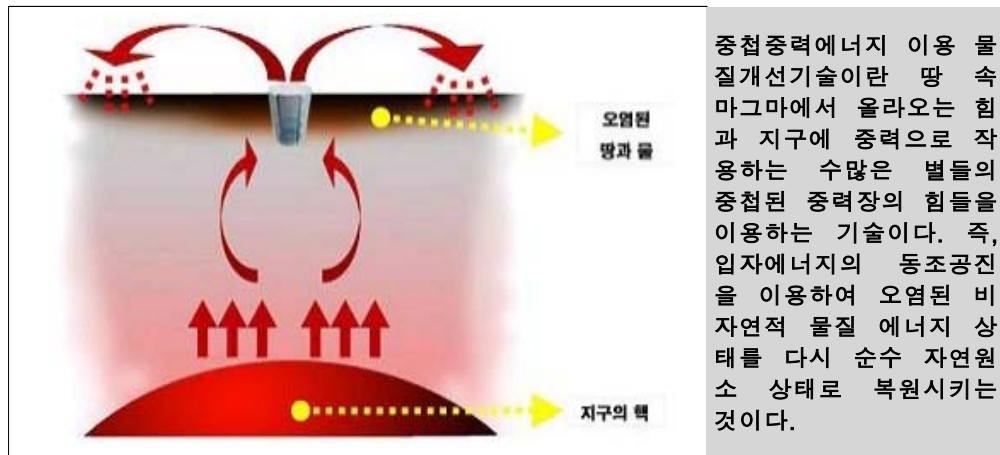
○ 이 기술은 이렇게 한편으로 대자연의 기운을 이해하고 대자연과 동조가 되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대자연과 동조시키게 유도하고 시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대자연과 동조되지 않는 것은 대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시에 사람, 가축, 농산물, 양식수산물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중력에너지와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을 이미 600년 전에 터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600년 전 이미 실현되었던 진품 고려청자 제조기술이다.

○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고려청자 핵심 제조기술이 무 생명체에 생명체물질기운이 가지고 있는 생명기운을 입력하는 기술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어떤 생명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한의 한계성 기운을 무 생명체에 무한의 대광역성 기운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핵심이론이 바로 ‘중첩중력장’ 과 ‘중첩정보장’ 이론이다.

21) 이하 중첩중력에너지 이용 물질개선기술에 관한 서술은 지구생명환경개선협회 김학제 회장의 저술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22) 땅속 마그마에서 올라오는 힘과, 지구에 작용하는 수많은 별들의 중력이 중첩되어 형성된 중첩중력장의 힘을 이용하는 핵심기술로 오염된 땅, 물, 공기 등 모든 물질의 근본을 자연 상태로 복원시키는 획기적인 물질개선 기술이다.



다시 설명하면, 중첩중력장이란 우주공간에 티끌만한 것이라도 무게가 존재하는 한 거리와 관계없이 중력이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의 별이 갖는 중력은 우주공간의 모든 별수만큼 많은 중첩된 중력장 속에 쌓여지게 되며, 이러한 중첩중력장 속에는 그 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정보와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 모든 식물들은 각각의 안테나인 잎을 만들어 그 중첩된 정보장과 에너지장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 동조, 동진시켜 정보와 에너지를 끌어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며 그 결과, 고구마, 감자, 무, 배추 등 다양한 식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물, 같은 땅, 같은 태양이지만 별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보와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틀린 형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같은 사무실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영국의 미술가와, 또 다른 한 사람은 프랑스의 요리사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하지만 중첩중력에너지를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예를 들어 식물이 수신하는 정보와 에너지를 그 실체가 없이도 끌어드릴 수 있다. 진품고려청자 핵심제조기술은 중첩중력장 속에서 필요한 정보와 에너지를 동조시켜 형태 없는 무, 배추, 감자, 고구마, 더덕, 산삼 등 무수히 많은 것들을 실체와 똑같은 기운을 내게 하여 우리에게 무한 시간동안 그것을 공급하여 주는 기술이다.

○ 농작물의 성장과 수확은 지하수맥과 지상수맥의 영향을 받는다. 화화농사법에서 수맥의 영향을 중화시키는데는 중첩중력에너지를 주입한 바이오 이그야(BIO-EGYA)를 활용한다.

○ 흙 알갱이는 태양계, 은하계와의 동조현상으로 에너지 공급을 받는다. 특히 화화농사법은 달, 태양계 농사법이 아닌 은하계농사법이다. 이 은하계의 기운을 이용하여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대응한다.

○ 식물들은 특정 시간대에 별 에너지가 극대화 되는 “동타라콘칭”이 일어난다.²³⁾ 농약·비료·계초제 등은 동타라콘칭을 약화시킨다

23) 만물이 20개의 궤도를 가지고 있듯이 태양계도 20개의 별이 있다. 의식계인 수,금,지,화,달,목,토,천,해,명의 별과 무의식계인 궁,피,지,나,고,야,마,다리,니,야야가의 별이 있다. 만물은 이 별들과 동조 동진 구구나(화음=하나)가 되면 별과 연결돼 그 별의 기능에 따라 혜택(도움)을 받게 된다. 김학제, 화화농사법(2009)



○ 식물의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뿌리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단농뿌리가 있는데, 단농뿌리 에너지 값을 올려야 식물은 더 건강해 진다고 화화농사법²⁴⁾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또 농작물의 병해충은 농약오염의 밥상으로 연결되며, 다시 더 큰 오염과 약탈로 번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얽혀 가기 때문에, 화화농사에서는 중첩중력에너지 활용으로 씨앗과 잎 사이의 에너지 비율값을 올려 탄저병 같은 병해충을 이기는 농사 곧 다양성-면역성-생명성을 회복시키는 길을 강조한다.

4. 문제의 정리와 희망

○ 농사의 본질적 가치가 분열되어 자아가 상실될 때 그 농사의 생명성은 무너지고 만다. 농사의 속살은 떠나고 겨우 껍데기만 무성한 그곳에는 왜곡된 기술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초조한 농심의 서두름이 허공을 떠돌 수밖에 없다.

○ 생태계 파괴자 개발성장 이데오로기와 생태농사는 대립과 갈등 관계이며 병 주고 약 주는 모순 관계이다. 탄소기반경제는 개발성장중심 자본주의의 풍토병이기 때문이다. 이윤증대와 효율성 추구의 경제 틀(구조) 안에는 농사환경의 오염과 파괴의 악순환을 지어내는 동학이 숨어 있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수량x가격이라는 우리의 농정은 지배의 술책이며 허구적 희망임을 이제 자각해야 한다.

○ 우리시대 자본주의는 속도와 양(量)의 神, 이윤의 神을 숭배한다. 그러기 때문에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생명농사의 길잡이는 자본주의 틀을 문제해결책으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24) 이른바 우주의 별기운과 땅속의 마그마기운 곧 중첩중력장 속에 있는 무한에너지를 농사에 활용하는 기술을 「화화농사법」으로 이름 부른다.

○ 사회는 생명농사를 필요하는 데 사회구조는 비뚤어진 농사를 만들고 있다. 돈과 물질적인 것 보다는 본질적 가치를 좀 더 중시 여기는 농사가 부족한 현실은 결코 희망의 농사일 수가 없다.

○ 「빅터」, 「슈타이너」, 「김학제의 화화농사법」 등 여러 선각자들은 태양계 은하계의 별기운을 농사에 적용한다. 특히 수, 금, 달의 기운은 석회성분을 통해 식물 번식 강화에 작용하고, 화, 목, 토의 기운은 규산성분을 통해 식물 성장력 강화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정신적 깨달음에다 사랑의 농사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²⁵⁾고 이들은 강조하고 있다. 지식만 갖고서는 영성의 소리 정신적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농사와 자연에 대해 지금 과학영농 기술과는 한 차원 넘어서 접근한다. 자연 그리고 농사를 아는 것은 자연(농사)과 동조 동진 하나로 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 영적 울림에 가까운 내밀한 체험의 효과 같은 내 안의 내공이 농사에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 생명이란 높은 차원의 욕구가 양면성²⁵⁾을 지닌 채 물질세계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연의 작품은 동일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농사를 대하는 방식도 기계적 획일성이나 정형성은 거부되고 만다는 자연의 섭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 볼 때이다.

○ 농사에서는 다양한 차원으로부터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이것이 자연이고 농사의 근본이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서 우주의 근원인 생명과 사랑의 의지를 드러낸 현상이 유기농사이며, 그곳은 생명의 옷을 짜는 작업장이다. 우리가 생명의 농사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면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목된 생태농업기술의 진전이 절실히 요구된 곳이 지금 우리농사다. 그렇다면 농학, 수리학, 화학 등 전통적 과학기술 이론과 사실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적어도 변질이 아닌 변화가 있어야 한다.

○ 변화와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일러주는 따끔한 지침으로서 「빅터 샤우버거」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받는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²⁶⁾

○ 무너지고 있는 우리농사에서 필요한 것은 변화이고 방향전환이다. 마음을 바꾸고 의식을 전환하면 그곳에 길이 있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은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라”했다. 문제는 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면 스스로 일어설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의 농사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할 이유도 바로 농사방식이 바뀌어 지기 위해서다.²⁷⁾

25) 양면성은 서로 상반된 에너지들의 상호작용(열과 냉, 전기와 자기, 원심력과 구심력 등)으로 끊임 없는 맥동과 순호나를 만들어 낸다. 이것이 있기에 생명은 살아 숨쉰다.

26) 빅터의 위대한 자연관과 생태친화적 농사에 대해 연구한 미국인 과학자 「콜럼코츠」의 회고에서 인용.

27) 생각의 변화는 관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자연의 힘을 믿게 한다. 300평의 논에 거미 3마리가 2만마리의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일·야마다현 유기농회 관찰결과가 있다. 우리들 논에 거미와 개미가 안보여 간다.

- 오늘 우리가 심은 이 작은 묘목은 최소한 100년 기다려야 목재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해야 한다. 자연은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도 농사에서 그 일을 따라 배워야 한다.
- 평면 위 Δ 형의 내각의 합은 180° 이다. 같은 Δ 형이지만 구면에서의 Δ 형은 270° 가 된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개입돼서 엄청난 차이를 낸 것이다.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유클리드 원리」의 과학이 우리농사에게 주는 되새겨 볼 교훈이다.
- 오늘 우리의 유기농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고독하게 변해야 한다. 이럴 때 아주 총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결론내린 “나의 생각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있는 한마디는 캄캄한 이 침묵의 공간에서 우리를 사유하게 만든다.
-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는데, 지금의 과학기술과 돈은 자연이 헤낼 수 없는, - 농사가 해서는 안 되는 저승길을 가라고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넘어서라는 유혹을 거부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유기농사의 길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복잡한 이론으로 사람 헛갈리게 할 필요가 없다.
- 기후변화는 지금의 농사방식을 바꾸라고 재촉하고 있다.